

# 차 례

I. 조 사 개 요	19
1-1. 조사 주제와 목적	21
1-2. 조사 대상	21
1-3. 조사 표본 및 표본 추출 방법	21
1-4. 조사 방법	22
1-5. 조사 기간	22
1-6. 조사 항목	22
1-7.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3
II. 결 과 요 약	25
A. 차별 실태 분포 및 평균 값 분석	27
B. 여성장애인의 프로그램 이용여부 및 의향 (공공정책)	28
C. 여성장애인의 프로그램 이용여부 및 의향 (사회프로그램)	29
D. 여성장애인의 프로그램 이용여부 및 의향 (시설 완비시)	29
III. 조 사 결 과	31
가. 응답 여성장애인의 특성	33
나. 여성장애인의 교육문제	36
다.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 생활 문제	38
라. 여성장애인의 직종 및 주업무	39
마. 가정 내 문제	45
바. 비장애인과 관련 문제	48
사. 결혼 문제	50
아. 폭력 (성폭력) 문제	53
자. 경제력 문제	56
차. 생활 불편점	59
카. 생활 만족도	60
IV. 여성장애인의 각종 프로그램 이용여부 및 의향	61
V. 별 첨	63
조사 질문지	64

# 표 차 례

표 1)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33
표 2) 장애발생 요인	33
표 3) 가족의 장애유형	35
표 4) 직 종	39
표 5) 주로 하는 일	39
표 6) 가정내 문제에서의 차별	45
표 7) 결혼여부 및 실태	50
표 8) 남편의 장애형태	50
표 9) 결혼반대 이유	51
표 10) 성폭력 경험	54
표 11) 경험 후 행동 사례	55
표 12) 경제적인 조력자	57
표 13) 생활에서 어려운 점 세 가지	59

## I. 조사 개요

### 1-1. 조사 주제와 목적

본 조사의 주제와 목적은 한국의 재가(在家) 여성장애인의 차별을 중심으로 실태 및 현실 삶에서 느끼는 다양한 욕구(정부, 사회, 개인적 욕구)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사회에 알리고 여성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 1-2. 조사 대상

전국의 18세 이상 재가(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여성 장애인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장애유형을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본인의 차별 등에 대한 응답이 가족 및 부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미묘한 것들이어서 개별적으로 면접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정신지체 장애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조사목적상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조사주제를 약간 달리하여 지속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 1-3. 조사 표본 및 표본추출방법

전국의 18세 이상의 재가(在家) 여성장애인의 목록을 작성하여 대인면접 방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가능한 인명록을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선 전국의 지역별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서울 266명(37.0%), 경기 97명(13.5%), 부산 73명(10.2%), 대구 76명(10.6%), 광주 75명(10.4%), 대전 62명(8.6%), 강원 30(4.2%), 제주 40명(5.6%)으로 분포되었다. 조사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를 제외한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의 분포를 각각 50%, 25%, 25%씩을 할당하여 총 표본은 720명이 조사되었다. 전국의 인구비례별 할당표본추출을 하는 것이 조사자료를 일반화하는데 용이한 점이 있으나, 전국여성장애인 분포에 대해 정확히 파악된 통계가 미흡한 점, 여성장애인과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점등으로 인해 편의 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조사 자료를 전국여성장애인을 정확히 대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차별 및 욕구에 대한 시험적 조사라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1-4.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로 여성장애인 리스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1:1 개별 대인면접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지 내용상의 문제점 및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1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본조사(Field-work)는 미리 수집된 약 1,000여명의 여성장애인과 전화를 통해 방문 약속을 받고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청각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수화통역자를 대동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표본의 전체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는데는 일정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사실이다.

**1-5. 조사 기간**

- 총 조사 기간 : 1997년 8월 12일~10월 10일
- 조사 및 PRE-TEST : 7일간(8월 12일~8월 18)
- 실사기간 : 9월 2일~10월 10일
- 자료처리 기간(설문지 검증, 코딩 및 편정) : 10월 12일 ~10월 20일
- 자료분석 및 레포트 작성 기간 : 10월 22일~11월 7일
- 결과보고 및 레포트 제출 : 1997년 11월 12일

**1-6. 조사 항목**

조사 항목을 분석적인 차원에서 대별하면 내용상 제1영역.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제2영역. 여성장애인의 욕구, 제3영역. 여성장애인의 의식, 제4영역. 여성장애인의 대응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질문지 구성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결혼, 폭력, 경제력, 사회적 욕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1-7.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719	(100.0)	전체	719	(100.0)
<b>장애유형별</b>			<b>직업별</b>		
지체	478	(66.5)	전문직	13	(1.8)
시각	112	(15.6)	판매/서비스	19	(2.6)
청각	129	(17.9)	자영업	24	(3.3)
<b>장애정도별</b>			사무직	11	(1.5)
1급	209	(29.1)	기술직	1	(.1)
2급	279	(38.8)	공무원	8	(1.1)
3급	123	(17.1)	학생	9	(1.3)
4급	62	(8.6)	기능직	27	(3.8)
5급	22	(3.1)	생산직	74	(10.3)
6급	9	(1.3)	단순노무직	3	(.4)
무응답	15	(2.1)	무직	530	(73.7)
<b>장애발생시기</b>			<b>결혼유무별</b>		
출생때부터	148	(20.6)	기혼	373	(51.9)
생후1-2년전후	285	(39.6)	미혼	346	(48.1)
7-8세전후	129	(17.9)	<b>개인월평균소득</b>		
20세 전후	61	(8.5)	개인소득없음	539	(75.0)
성인이 된 후	94	(13.1)	10~29만원	8	(1.1)
무응답	2	(.3)	30~50만원	69	(9.6)
<b>연령별</b>			60~74만원	47	(6.5)
24세 이하	151	(21.0)	75만원 이상	56	(7.8)
25~29세	150	(20.9)	<b>지역별</b>		
30~34세	136	(18.9)	서울	266	(37.0)
35~39세	88	(12.2)	경기	97	(13.5)
40~49세	113	(15.7)	부산	73	(10.2)
50세이상	81	(11.3)	대구	76	(10.6)
<b>학력별</b>			광주	75	(10.4)
초등학교	198	(27.5)	대전	62	(8.6)
중학교	152	(21.1)	제주	40	(5.6)
고등학교	297	(41.3)	강원	30	(4.2)
대학중퇴이상	68	(9.5)			
무응답	4	(.6)			

---

## II. 결과 요약

---

**A. 차별 실태 분포 및 평균 값 분석**

구 분	사례 수	매우 많이 차별 받았다 (100)	차별 받는 편 (75)	보통 (50)	차별 없는 편 (25)	전혀 차별 받지 않았다 (0)	모름 / 무응답	평 균
		×	×	×	×	×		
■ 사회의 차별	(719)	33.7	28.7	22.8	9.0	4.9	1.0	69.49
■ 가족 나들이 차별	(719)	16.8	9.0	14.3	11.4	47.0	1.4	65.90
■ 주위의 편견 정도	(719)	22.7	19.9	24.3	16.1	16.1	0.8	54.24
■ 취업 단계에서 차별	(719)	20.2	14.7	22.9	8.1	20.7	13.4	51.61
■ 급여, 인사차별	(180)	14.4	15.6	18.9	14.4	27.2	9.4	43.25
■ 학교 교육 형제자매 비교	(623)	15.2	10.6	19.1	11.7	41.3	2.1	36.43
■ 장애머느리 차별	(374)	12.0	10.2	16.3	12.8	41.4	7.2	33.43
■ 직장에서의 차별	(180)	6.1	10.6	21.7	17.2	37.2	7.2	31.44
■ 가정내 의사 결정 차별	(719)	10.3	9.2	17.1	11.8	50.3	1.3	29.05
■ 가정 대소사 참여 차별	(719)	10.8	9.2	13.9	12.5	52.3	1.3	28.17
■ 가족간 대화 차별	(719)	9.0	8.9	10.0	11.4	59.7	1.0	23.81

☛ 참조 :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정도가 심각한 정도를 나타냄.

**B. 여성장애인의 프로그램 이용여부 및 의향 (공공정책)**

구분	① 경험 있음	② 적극 이용	③ 가끔 이용	②+③	① 경험 있음	①+ ②+③	④ 거의 이용 안함	여건상 이용 못함	무응답
금융지원	6.7	57.3	12.0	69.3	6.7	76	8.3	7.0	8.8
의료보조비 지원	24.2	55.1	8.5	63.6	24.2	87.8	2.9	3.8	5.6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	10.4	54.7	8.6	63.3	10.4	73.7	5.8	10.2	10.3
공여주차장 50%감면	7.9	58.1	4.7	62.8	7.9	70.7	4.7	13.4	11.1
공항 입장료 면제	12.8	53.7	7.9	61.6	12.8	74.4	4.5	10.4	10.7
자녀교육비 지원	12.2	53.3	8.1	61.4	12.2	73.6	7.0	11.0	8.5
LPG 연료 사용	7.6	56.1	4.5	60.6	7.6	68.2	5.3	16.3	10.3
자동차 세금 연접	13.1	54.8	4.6	59.4	13.1	72.5	4.2	14.0	9.3
각종 세금 공제	28.5	52.9	5.0	57.9	28.5	86.4	2.1	2.5	8.9
도심혼잡료 면제	4.5	51.5	6.1	57.6	4.5	62.1	7.5	16.7	13.8
철도 할인	30.6	44.4	8.2	52.6	30.6	83.2	2.5	6.4	7.9
항공료 할인	35.6	43.7	7.8	51.5	35.6	87.1	2.6	4.0	6.3
생계보조비 지원	27.0	42.6	8.6	51.2	27.0	78.2	7.4	9.6	4.9
영구임대 아파트	25.0	44.9	2.9	47.8	25.0	72.8	5.4	11.7	10.0
지하철 할인	41.7	38.2	5.8	44	41.7	85.7	2.5	5.4	6.3

**C. 여성장애인의 프로그램 이용여부 및 의향(사회프로그램)**

구분	① 경험 있음	② 적극 이용	③ 가끔 이용	②+③	① 경험 있음	①+ ②+③	④ 거의 이용 안함	여건상 이용 못함	무응답
자녀교육지원 프로그램	1.8	57.2	8.1	65.3	1.8	67.1	8.5	12.5	12.0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7.4	52.2	12.5	64.7	7.4	72.1	10.2	8.8	9.0
직업재활 프로그램	5.6	54.1	10.6	64.7	5.6	70.3	8.6	10.8	10.3
맹인심부름 센터(112명)	19.6	50.0	14.3	64.3	19.6	83.9	8.9	3.6	3.6
낮시간 재활 프로그램	3.5	52.6	11.4	64	3.5	67.5	9.9	11.4	11.3
심부름 센터	4.0	48.3	14.9	63.2	4.0	67.2	12.5	10.8	9.5
배달서비스-민원서류	3.5	50.8	12.2	63	3.5	66.5	9.7	11.3	12.5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3.8	48.7	11.0	59.7	3.8	63.5	11.7	14.3	10.6
자조집단 활동 프로그램	6.3	47.0	9.6	56.6	6.3	62.9	11.4	12.8	12.9
장애인 전용 목욕탕	3.5	42.7	12.5	55.2	3.5	58.7	16.6	15.7	9.0
가정도우미	2.9	39.9	14.9	54.8	2.9	57.7	17.4	14.5	10.4
배달서비스-수퍼	13.9	42.8	11.4	54.2	13.9	68.1	9.7	11.8	10.3
가정 지원 프로그램	1.3	45.1	8.1	53.2	1.3	54.5	12.4	19.2	14.0
배달서비스-음식점	19.2	41.0	10.6	51.6	19.2	70.8	9.3	8.8	11.1
장애인 전용차량 이용	12.0	42.0	8.8	50.8	12.0	62.8	6.0	12.4	18.9

**D. 여성장애인의 프로그램 이용여부 및 의향 (시설완비시)**

구분	① 경험 있음	② 적극 이용	③ 가끔 이용	②+③	① 경험 있음	①+ ②+③	④ 거의 이용 안함	여건상 이용 못함	무응답
근린 체육시설 이용	12.5	48.8	12.8	61.6	12.5	74.1	7.9	8.9	9.0
고궁, 명승지 관람	28.1	45.1	9.5	54.6	28.1	82.7	5.0	4.7	7.6
음악회 참석	20.4	45.8	8.1	53.9	20.4	74.3	7.1	9.9	8.3
박물관, 미술관 관람	28.5	43.7	9.3	53	28.5	81.5	4.9	6.8	6.8
영화관람	30.3	45.2	7.1	52.3	30.3	82.6	4.5	6.0	7.0

■ 여성장애인의 각종 프로그램 이용여부 및 의향

전체응답자 (N=719)	경험있음 %	적극이용 %	가끔이용 %	거의이용않음 %	여건상이용못함 %	모름/무응답 %
<b>■ 공공 정책</b>						
생계 보조비 지원	27.0	42.6	8.6	7.4	9.6	4.9
자녀교육비 지원	12.2	53.3	8.1	7.0	11.0	8.5
의료 보조비 지원	24.2	55.1	8.5	2.9	3.8	5.6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	10.4	54.7	8.6	5.8	10.2	10.3
금융 지원	6.7	57.3	12.0	8.3	7.0	8.8
각종 세금 공제	28.5	52.9	5.1	2.1	2.5	8.9
교통요금 할인 - 지하철	41.7	38.2	5.8	2.5	5.4	6.3
교통요금 할인 - 비행기	35.6	43.7	7.8	2.6	4.0	6.3
교통요금 할인 - 철도	30.6	44.4	8.2	2.5	6.4	7.9
서울시 도심 혼잡료 면제	4.5	51.5	6.1	7.5	16.7	13.8
공항시설 입장료 면제	12.8	53.7	7.9	4.5	10.4	10.7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13.1	54.8	4.6	4.2	14.0	9.3
LPG연료 사용	7.6	56.1	4.5	5.3	16.3	10.3
공영주차장 50% 감면	7.9	58.1	4.7	4.7	13.4	11.1
영구임대 아파트	25.0	44.9	2.9	5.4	11.7	10.0
<b>■ 사회 프로그램</b>						
장애인 전용차량 이용	12.0	42.0	8.8	6.0	12.4	18.9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7.4	52.2	12.5	10.2	8.8	9.0
장애인 전용 목욕탕	3.5	42.7	12.5	16.6	15.7	9.0
심부름 센터	4.0	48.3	14.9	12.5	10.8	9.5
가정도우미	2.9	39.9	14.9	17.4	14.5	10.4
맹인심부름 센터 이용	3.1	7.8	2.2	1.4	65.1	20.4
배달서비스 - 슈퍼	13.9	42.8	11.4	9.7	11.8	10.3
배달서비스 - 음식점	19.2	41.0	10.6	9.3	8.8	11.1
배달서비스 - 각종 민원서류	3.5	50.8	12.2	9.7	11.3	12.5
가정 지원 프로그램	1.3	45.1	8.1	12.4	19.2	14.0
낮시간 재활 프로그램	3.5	52.6	11.4	9.9	11.4	11.3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1.8	57.2	8.1	8.5	12.5	12.0
직업재활 프로그램	5.6	54.1	10.6	8.6	10.8	10.3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3.8	48.7	11.0	11.7	14.3	10.6
자조집단 활동 프로그램	6.3	47.0	9.6	11.4	12.8	12.9
<b>■ 시설 / 교통여건 구비시</b>						
영화 관람	30.3	45.2	7.1	4.5	6.0	7.0
박물관, 미술관 관람	28.5	43.7	9.3	4.9	6.8	6.8
음악회 참석	20.4	45.8	8.5	7.1	9.9	8.3
고궁, 명승지 관람	28.1	45.1	9.5	5.0	4.7	7.6
근린 체육시설 이용	12.5	48.8	12.8	7.9	8.9	9.0

III. 조사 결과



**가. 응답 여성장애인의 특성**

**1. 장애유형과 정도 및 발생 원인, 장애 발생 시기**

표 1)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유형\정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무응답	계
지체	121	167	102	55	18	6	9	478
시각	85	12	6	3	2	3	1	112
청각	3	100	15	4	2		5	129

조사 대상자의 719명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478명으로 66.5%, 시각 112명(15.6%), 청각장애인은 129명(17.9%)이다. 이번 조사에서 '차별'실태조사라는 주제의 성격상 응답이 곤란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이 제외된 바, 일반통계의 장애 유형분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신지체를 포함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장애발생 요인

발생원인	사례수	%
질병	479명	65.3%
일반(안전)사고	102명	14.2%
선천성	44명	6.1%
의료사고(약물)	30명	4.2%
기타	45명	6.3%
무응답	18명	2.5%
<b>총 계</b>	<b>719명</b>	<b>100%</b>

발생원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선천성 장애, 일반적인 안전사고, 의료(약물)사고, 질병에 의한 장애, 기타 이유로 인한 장애 발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질병(소아마비, 뇌성마비 등)에 의한 장애발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기 측면에서 보면, 날 때부터 20.6%, 생후 1~2년 전후 39.6%, 7~8세 전후 17.9%, 20세 전후 8.5%, 성인이 된 후 13.1%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장애인의 장애는 생후 1~2년을 전후한 유아기에 각종 질병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구체적인 장애발생 요인

구분	사례 수	%
	719	100.0
소아마비	172	23.9
뇌성마비	105	14.6
고열(열병)	95	13.2
교통사고	44	6.1
선천적	44	6.1
홍역	32	4.5
발병이유를 모름	21	2.9
경기(놀라서)	19	2.6
뇌수술로 인한 시신경위축(다출혈)	15	2.1
녹내장	9	1.3
산에서 추락	8	1.1
백내장	8	1.1
놀다가 다쳐서	8	1.1
(얼음판에서)넘어져서	8	1.1
결핵성 내막염	8	1.1
산업재해	7	1.0
근이양증	7	1.0
나무에서 떨어져서	7	1.0
뇌졸중	6	0.8
신경마비	6	0.8
약물복용후 부작용	6	0.8
의료사고	6	0.8
화상	5	0.7
한국전쟁때 총상	4	0.6
긋병	4	0.6
연탄가스	4	0.6
관절염	4	0.6
망막박리	4	0.6
근병	3	0.4
왜소증	3	0.4
팔수염	3	0.4
돌에 부딪쳐서	2	0.3
수해사고	2	0.3
침을 한줄에 맞아서	2	0.3
당뇨병(합병증)	2	0.3
간질	2	0.3
약물과다복용	1	0.1
임파선염증	1	0.1
홍진으로 약시	1	0.1
지능저하	1	0.1
신경과민에 영양실조	1	0.1
황달	1	0.1
결막염	1	0.1
포도선염	1	0.1
신경섬유종양	1	0.1
이질병	1	0.1
폐렴	1	0.1
수용시설에서 훈련받다가	1	0.1
뇌수막염	1	0.1
산후 조리 후	1	0.1
감전사고	1	0.1
장티푸스	1	0.1
무응답	18	2.5

2. 가족 중 장애인 존재여부 및 유형

표 3) 가족의 장애유형

(사례수 719명)

장애유형	가족 구성원	비율	
		명수	%
지체 (91명) 56.2%	남편(41명)	41	45.1%
	아버지/어머니(19명)	19	20.9%
	오빠/남동생(17명)	17	18.7%
	언니/여동생(14명)	14	15.4%
시각(16명) 9.9%	남편(2명)	2	12.5%
	아버지/어머니(5명)	5	31.3%
	오빠/남동생(5명)	5	31.3%
	언니/여동생(4명)	4	25.0%
청각(55명) 34.0%	남편(31명)	31	56.4%
	아버지/어머니(5명)	5	9.1%
	오빠/남동생(5명)	5	9.1%
	언니/여동생(4명)	4	25.4%
<b>있다 (148명) 20.6%</b>			
<b>없다(571명) 79.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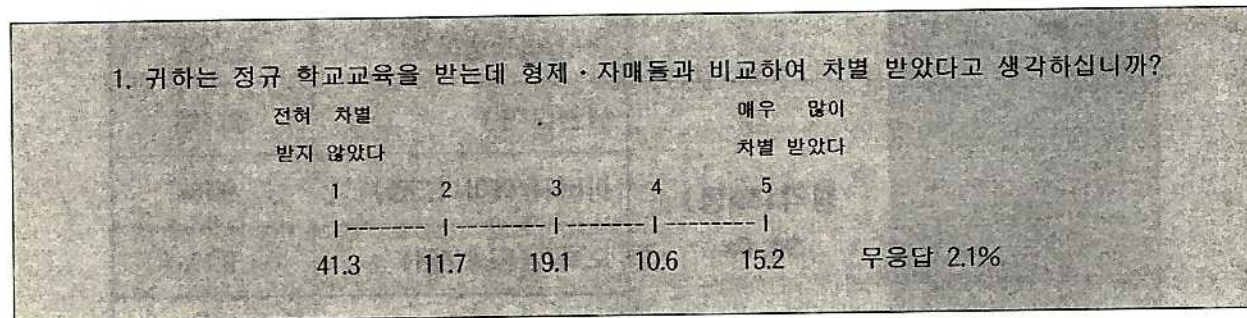
가족 중 또 다른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719명 가운데 148명(20.6%)이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같은 종류의 장애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사한 장애유형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이 성사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가 절반인 45.7%로 가장 많았고, 남자형제 21.6%, 여자형제 19.8%, 부모님 17.9%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남편과 친정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도 있어 중복 응답한 결과 장애유형에서 162케이스가 된다. 즉, 148명중에서 14명은 가족 가운데 또다른 장애인이 2명 이상 있다는 것이다.

**나. 여성장애인의 교육문제**

교육 정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여성장애인의 41.3%가 고등학교 교육(중퇴 포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통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조사대상의 특성상 어떤 모임(사회단체, 장애인단체, 동호인 모임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인 통계치 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퇴를 포함하여 분류할 때, 초등학교 27.5%, 중학교 21.1%, 고교 41.3%, 대학교 9.5%로 나타났다.

**1. 교육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차별 정도**

참고로 교육문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성인이 되고 난 후 장애가 발생한' 응답자는 학교교육을 받는 동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부적절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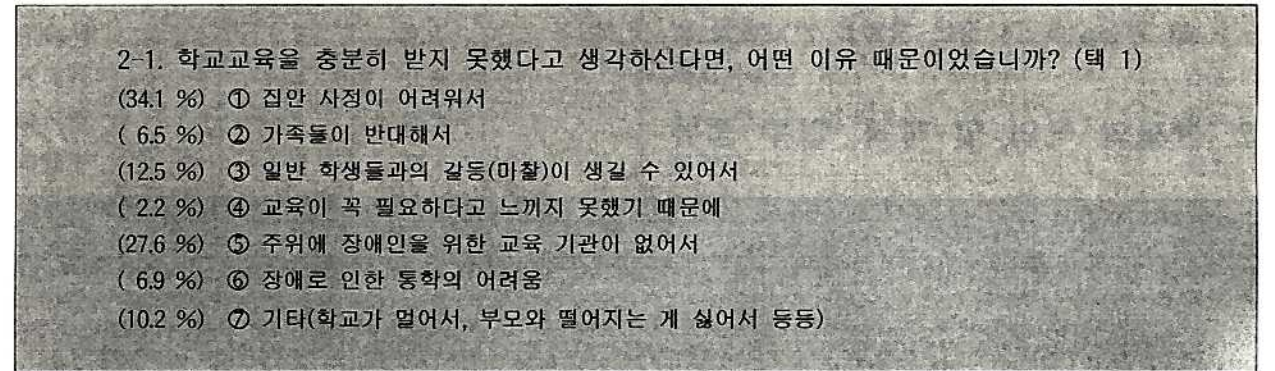
여성장애인의 대부분은 학교교육을 이수하는데 있어 다른 형제, 자매들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7.8%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차별은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23.7%), 시각(24.7%), 청각(33.9%) 순으로 나타나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이 다른 장애를 가진 여성보다 교육을 받는데서 더 많은 차별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육정도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을수록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학교육(중퇴포함)을 받은 여성장애인들이 '거의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질문에서 '차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다음처럼 설명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학교교육을 많이 못 받았다 할지라도 가족구성원(형제, 자매)들과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크게 차별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일반사회의 구성원들과 비교하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교육이수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가족구성원들과 비교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차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2. 학교 교육이수에 대한 만족도**



성인이 되고 나서 장애를 얻은 응답자를 제외한 여성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 질문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스스로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다'(37.1%)는 응답이 '충분히 받았다'(23.4%)는 응답보다 적게 집계되었다. 형제, 자매들과 비교해서 학교교육을 이수하는데 서는 많이 차별을 받지 않았으나, 스스로는 충분히 배울 만큼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더 많은 교육이수가 사회의 여러 가지 차별과 냉대, 경제적인 곤란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포함된 것이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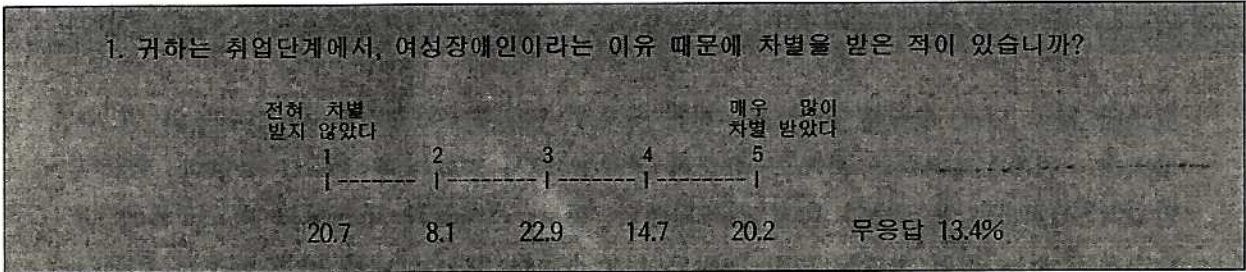
**3. 불충분한 교육이수 이유**



여성장애인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충분히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다(232명) 응답자들은 대부분 "집안사정이 어렵거나(34.1%)", "주위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어서(26.7%)", 그리고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비장애 학생들과의 마찰이 생길 것(12.5%)"을 걱정해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주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0%이상을 차지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몸이 많이 불편할수록 '주위에 장애인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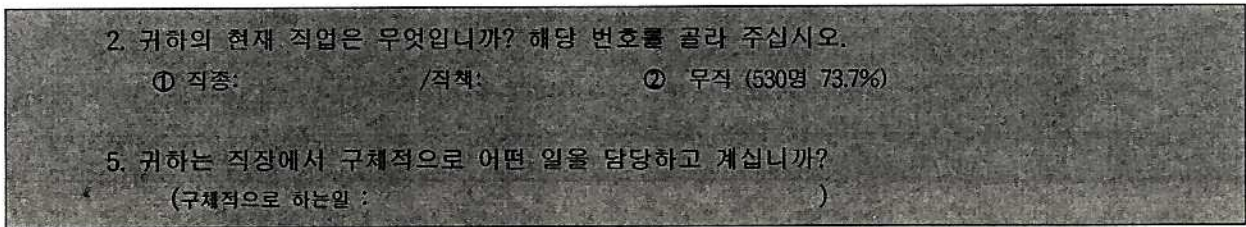
**다.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 생활 문제**

**1. 취업 단계에서의 차별**



여성장애인들은 취업단계에서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 그 자체”가 차별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스스로 느끼고 있음이 밝혀졌다. 취업단계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다’(28.8%)는 응답 보다 ‘차별을 받았다’(34.9%)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차별이 많았다는 응답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시각(25.9%), 지체(35.4%), 청각(41.1%) 순으로 나타나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취업단계에서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중졸이상 응답자들 가운데서 대학중퇴이상(30.9%), 고교(32.3%), 중학교(42.8%) 순으로 차별을 더 받았다고 응답하여 학교교육을 덜 받을수록 더 많은 차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현재의 직업 및 직책, 업무 종류**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전체의 25%인 18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지체장애인에 거의 편중되어 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478명 가운데 37.7%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112명 가운데 22.3%, 청각장애인은 129명 가운데 28.7%만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각장애인인 경우 직업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25명으로 매우 적지만, 그것도 거의 대부분인 20명이 ‘안마사’에 편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각, 시각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 여성장애인의 직종 및 주업무**

표 4) 직종

직종	사례수	%
	(719)	100.0
조립, 생산	40	5.6
안마사	20	2.8
자영업	18	2.5
미싱사	17	2.4
서비스직	11	1.5
사무직	10	1.4
학생	9	1.3
생산직	9	1.3
제조업	8	1.1
자유전문업	7	1.0
방송직	4	0.6
피아노 강사	4	0.6
공무원	3	0.4
텔레마케팅	3	0.4
사회복지사	3	0.4
침술사	3	0.4
판매직	3	0.4
요식업	2	0.3
파출부	2	0.3
금융/보험업	2	0.3
건설업	1	0.1
기술직	1	0.1
농원	1	0.1
청소부	1	0.1
상담직	1	0.1
신문보급소	1	0.1
성직자	1	0.1
인쇄업	1	0.1
광고이벤트	1	0.1
장애인 협회	1	0.1
복지사단법인	1	0.1
무직	530	73.7

표 5) 주로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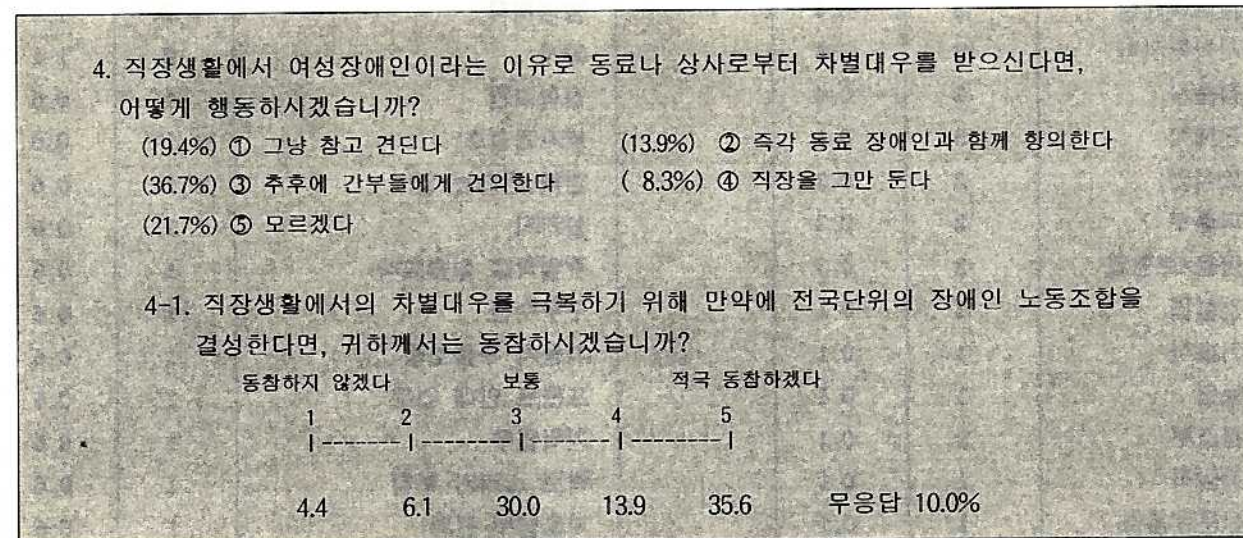
직접 하는 일	사례수	%
	(180)	100.0
생산직	34	18.9
안마사/침술	23	12.8
사무/경리	18	10.0
미싱	14	7.8
생산라인에서 전자제품 생산	8	4.4
판매/외판	8	4.4
학생 가르치는 일	5	2.8
상담지도 업무	3	1.7
전산 사식	2	1.1
기술직	2	1.1
직업상담	2	1.1
고객관리(텔레마케팅)	2	1.1
제품 검사	2	1.1
방송제작	2	1.1
교사	2	1.1
전화교환	1	0.6
복지관청소	1	0.6
한복 만드는 일	1	0.6
설거지	1	0.6
주일학교 실습교사	1	0.6
구두수선	1	0.6
자동차 부품조립	1	0.6
프론트 안내 업무	1	0.6
기획업무	1	0.6
벽보 스티커 부착	1	0.6
자동납부 권유	1	0.6
매장개선 업무	1	0.6
수입소매업	1	0.6
영업 담당	1	0.6
프로그래머	1	0.6
컴퓨터 점역사	1	0.6
회지발간/사업홍보	1	0.6
무응답	36	20.0

### 3.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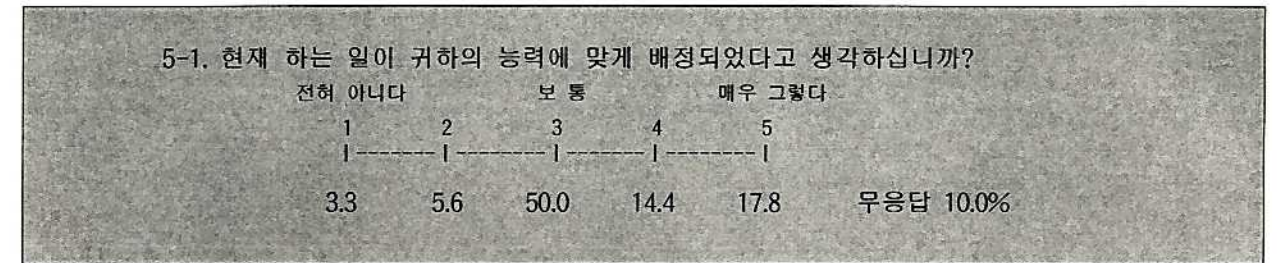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은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은 16.7%이며,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54.4%에 이르고 있다. 취업단계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34.9%인데 비해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취업단계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여성장애인들이 '직장을 갖는 단계에서 이미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장애인들이 하여금 '이 사회가 장애인을 편견을 갖고 차별한다'는 인식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하겠다.

### 4. 직장생활에서 차별에 대한 대응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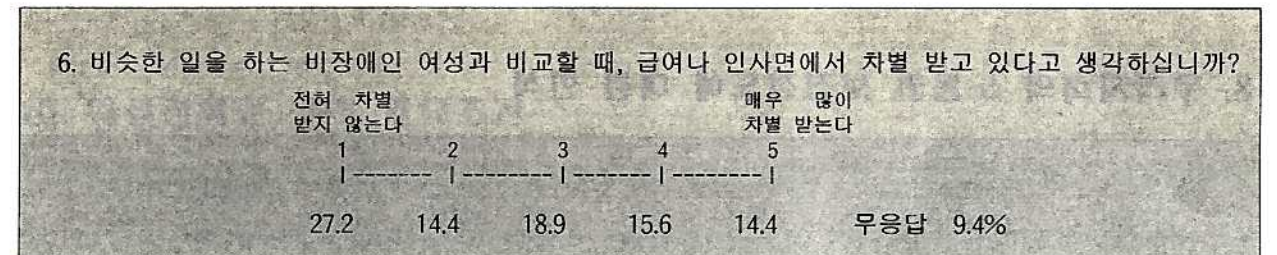
직업을 가진 여성장애인들은 '부당한 차별 대우'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8.3%)는 강력한 대응방식을 피력하기도 했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한 대처방식을 살펴보면, 소극적인 '그냥 참고 지내겠다'는 응답은 19.4%인 반면, '추후에 간부들에게 건의'(36.7%)하거나, '즉각 동료 장애인과 함께 항의'(13.9%)하는 적극적 행동양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지속되는 편견과 차별이 여성장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식을 강화시켰을지도 모를 일이다.

### 5. 현재의 업무배치에 대한 인식



현재의 하는 일이 자신이 능력에 맞게 배치되었다고 믿는 응답자가 32.2%인 반면, '능력에 맞지 않다'는 응답은 매우 적은 8.9%로써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시각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안마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으로써 자신의 일에서 능력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6. 급여, 인사면에서의 차별



직장에서의 가장 큰 보람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급여의 인상' 그리고 '승진'이라 할 수 있다.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의 영위하고자 할 때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담보요소는 차별이 아닌 공정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취업여성장애인들 가운데 30%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비장애여성에게 비해 급여나 인사면에서 어느 정도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급여면에서 차별을 받을 뿐 아니라 승진 등과 같은 인사 측면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차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41.7%로서 적지 않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들이 주관적으로 조금이라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일과 직장에 대한 애정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 7. 일의 효율에서 비장애인과 비교 및 개선사항

7.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효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다    ② 비장애인보다 약간 떨어진다  
 ③ 비장애인보다 많이 떨어진다    ④ 비장애인보다 더 높다    ⑤ 모르겠다

7-1.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작업 배치    ② 편의시설 등 환경    ③ 교육(훈련)    ④ 기타( )

현재의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서 여성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31.1%인 반면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50%에 달하고 있다.  
 즉, 장애인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일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비록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다는 의식을 엿보게 한다.  
 한편, 여성장애인들이 스스로는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등 환경문제 개선'(45.6%)이 시급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훈련)'(23.3%), '적절한 작업배치'(17.2%)를 통해서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8. 우리사회의 노동권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

8. 사회가 여성장애인들의 노동권(직업을 가질 권리)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매우 많이 보장한다
	-----	-----	-----	-----	-----	
	41.3	29.5	18.2	3.8	4.6	무응답 2.6%

우리사회는 여성장애인의 노동권(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을 보장하고 있는가?  
 조사자료를 통해서 볼 때, 여성장애인들이 스스로의 대답은 '아니다'는 것이다. 전체 응답자 719명 가운데 무려 70.8%의 응답자들이 우리사회가 여성장애인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해 가는 존재라고 볼 때, 사회가 가장 먼저 보장해야 하는 것은 노동권이다.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여성장애인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회가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망각함으로써 그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권은 여성장애인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쟁취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할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 9. 직업을 구하지 못한 이유

9. 본인이 구직단계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까? (택 1)

19.7%	① 여성장애인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18.2%)	② 기업체 등에서 여성장애인 고용을 꺼리기 때문에
요인 ( 5.4%)	③ 직장 동료들이 여성장애인과 근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17.8%)	④ 사회적으로 고용 지원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16.0%)	⑤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개인적 ( 6.4%)	⑥ 집안 가족 등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기 때문에
요인 ( 4.1%)	⑦ 기타(의사소통 불편, 교통불편 등)
(12.4%)	⑧ 무응답

직업을 구하지 못한 요인을 크게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 직장내 구성원들에 의한 차별, 정부의 고용대책 마련 미비, 고용주들의 그릇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인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장애인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항상 등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 스스로 '본인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16.0%)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매우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 10. 여성장애인 구직 필요조건

10. 여성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택 1)

24.1%	① 여성장애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20.9%	② 취업에 적합한 기술이나 능력
( 9.5%)	③ 직업교육이나 훈련	(11.5%)	④ 고용주의 이해(인식) 전환
(14.5%)	⑤ 정부의 고용 정책 개선	(16.8%)	⑥ 여성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
( 2.8%)	⑦ 무응답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취업 필요한 기술 능력'을 키워야 한다(45%)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 고용주, 사회에 대한 바램도 적지 않았다. 위에서 직업을 갖지 못한 이유설명에서 사회적 요인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 설명에서는 개인적 요인들을 우선하고 있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혹여 정부와 사회, 고용주들에 대한 일체의 기대를 포기하고 여성장애인 스스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밖에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음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이 조사자료는 이 물음에 정답에 가까운 해답을 주고 있다. 각종 자료에서 나타난 "사회와 정부의 노력에 대해 불신감"과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설명", 그리고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설명", "고용주가 꺼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등을 종합해 보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거의 확실해진다. "바로 그렇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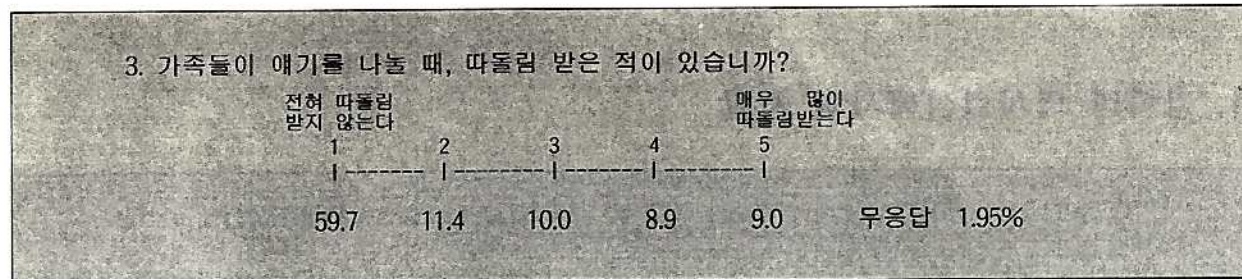
## 2. 가정 대소사 참여에서의 차별



여성장애인들도 가정에서 대소사가 있을 때 '일부러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대부분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응답이 20.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차별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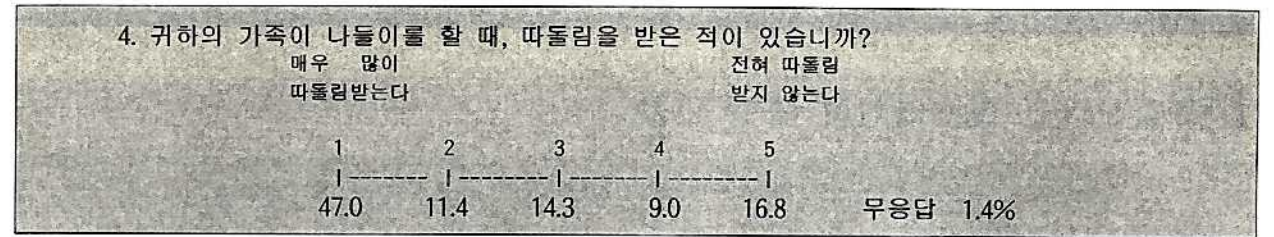
## 3. 가족의 대화에서의 차별정도



여성장애인들이 가족과 대화 시에는 거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가족 내에서의 차별 정도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차별정도를 보이고 있어 대화에서 단절되는 상황은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정의 의사결정'이나 '대소사 결정 시'에서 보다는 덜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가벼운 가족간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따돌림을 받는다는 17.9%의 응답자가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가족간의 대화에서 배제된다는 느낌은 매우 큰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장애를 가진 여성의 입장에서 가족간의 대화에서조차 따돌림당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의 바탕이 가족간의 대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대화는 삶에 있어 매우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 모두가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를 가지고자 노력할 때, 따돌림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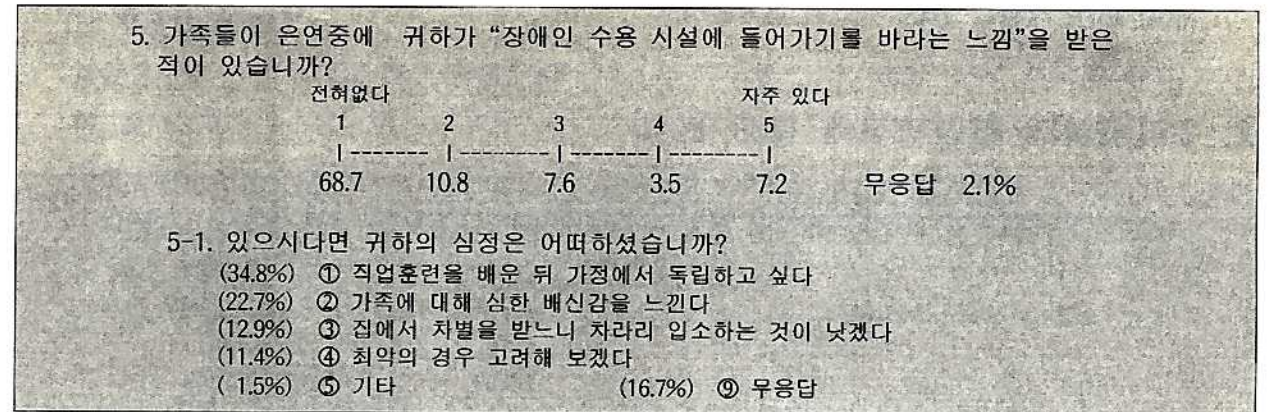
## 4. 가족 나들이에서의 차별



'가족들이 나들이할 때' 여성장애인들은 비교적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58.4%의 응답자가 가족나들이에서 '따돌림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따돌림당하고 있다'는 응답도 25.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내 문제로 차별 또는 따돌림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족내 의사결정'에서 19.5%, '대소사 참여'에서 20.0%, '가족간 대화'에서는 17.9%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나들이'에서 "차별(따돌림)당한다"는 응답은 25.9%로서 가정내 문제로 인한 차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어린 나이에 장애가 발생한 응답자의 경우에 차별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장애인 수용시설' 수용의사 경험여부 및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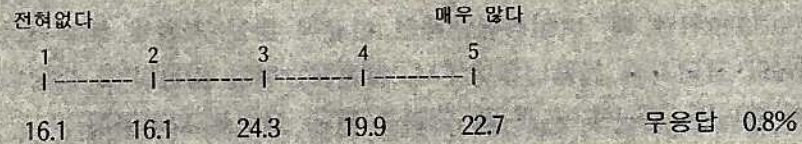
가족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본인이 '장애인 수용시설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응답자는 전체 여성장애인의 18.3%인 132명에 달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33.3%), 시각(16.9%), 지체(14.7%) 장애인 순으로 나타나 여성 청각장애인이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가족들이 '수용시설 수용'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기혼인 여성장애인 가운데서도 약 15.5%의 응답자들이 그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혼여성의 경우 가장 가까운 남편과 자식들에게서 그러한 느낌을 받음으로써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볼 때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바. 비장애인과 관련 문제**

**1. 주위사람의 편견의식에 대한 인식**

1.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주위 사람들이 여성장애인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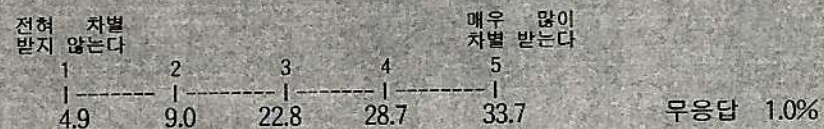


여성장애인들의 42.6%가 '가족을 포함한 주위사람들이 여성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가족을 포함한 주위사람들이 본인에 대한 '편견이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도 22.7%에 달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하겠다. 장애 유형별로 시각(54.5%), 지체(42.3%), 청각(33.3%) 순으로 편견의식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들인 경우 그 정도가 더하여 응답자의 54.5%가 편견의식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서 주위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시각, 지체)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하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편견이 심하다고 응답하여 살아오면서 느꼈던 주위사람들의 편견에 매우 시달려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2. 우리사회의 편견의식에 대한 인식**

2. 귀하는 우리사회의 비장애인들이 여성장애인들을 얼마나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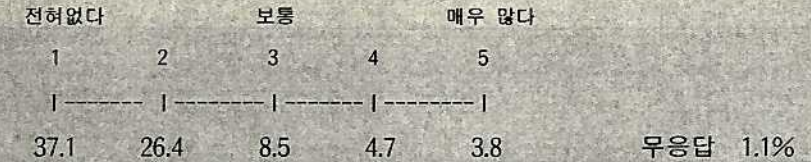
여성장애인들은 가족을 포함한 주위사람들(42.6%가 편견느낌)보다 우리사회의 비장애인들이 더 많은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62.3%가 '우리사회가 여성장애인을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33.7%의 응답자는 차별정도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여성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9%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20~30대의 응답자들이 차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 장차 우리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그들이 이 사회와 일체감을 갖고 자신의 역

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마음을 가질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다. 애정을 보여주지 않는 사회에 대해 그들의 어떤 성실과 헌신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발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체감(Identity)이라 할 수 있다. 일체감을 상실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회에 대한 비난'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비난은 정당하다.

**3. 정부의 여성장애인 정책 수립의지에 대한 인식**

3. 귀하는 정부가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장애인이 우리사회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앞서 우리사회의 여성장애인 차별정도가 심각했음을 보았다. 그러면 정부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의지에 대해서는 어떤지 살펴보자.

우선 정부의 정책의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불과 8.5%로 매우 미미한데 비해, 정부의 정책 수립의지를 불신하는 것은 63.6%로 압도적이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의지에 대한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7.75점으로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 그 자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사회의 여성장애인들은 직장과 사회에서 따뜻함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는 어떤 배려도 전무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철에 내놓은 '장애인 복지정책'등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면 언제나 등장하는 '장애인 복지' 슬로건이 '여성장애인'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과거 경험은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정치가 혼란스러울수록, 경제가 불황일수록 감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정치-경제상황이 혼란스러워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전무한 이때 여성장애인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엷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 사. 결혼 문제

## 1. 결혼 관련 문제

1. 귀하는 결혼 하셨습니까?(혹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51.9%) ① 예 (48.1%) ② 아니오
2. 귀하는 어떤 방식으로 결혼하십니까? ① 중매 ② 연애 ③ 가타( )  
2-1. 결혼식을 올리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남편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①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 ② 이혼 ③ 사별
5. 귀하의 경우 배우자는 비장애인이었습니까? (장애인이려면 장애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41.2%) ① 비장애인 (58.8%) ② 장애인(장애형태: )

표 7) 결혼여부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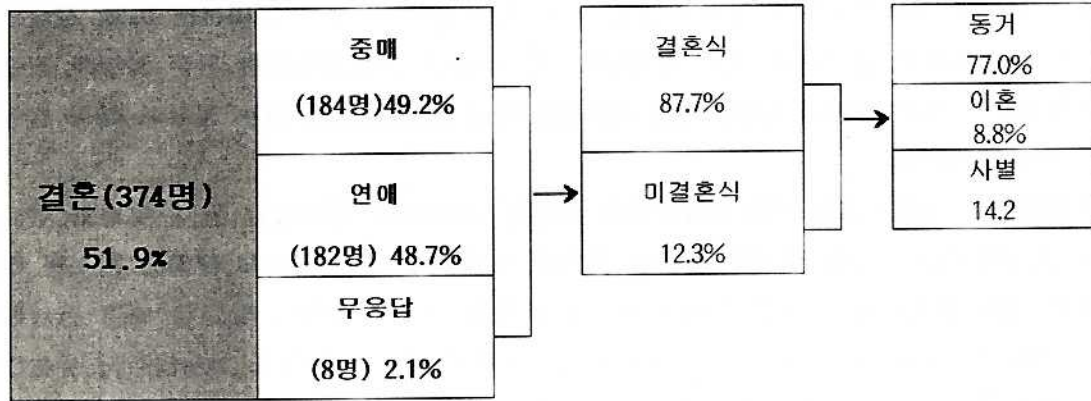


표 8) 남편의 장애형태

사례수 : 220명

장애 유형	남편 장애 106명 (47.1%)	비장애 119명 (52.9%)	
		지체(96명) 90.6%	시각(7명) 6.7%
지체(225명)	45명 (64.3%)	지체(2명) 3.8%	시각(39명) 86.7%
		시각(3명) 6.7%	청각(3명) 7.2%
		비장애 25명 (35.7%)	
시각(70명)	69명 (87.3%)	지체(3명) 3.8%	시각(5명) 6.7%
		시각(5명) 6.7%	청각(61명) 88.4%
		비장애 10명 (12.7%)	
청각(79명)			

## 2. 결혼 과정 문제

4. 다음 내용들은 결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비추어 해당되는 문항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60.4%) ① 처음부터 원만하게 결혼했다 (13.9%) ② 시댁에서 반대가 있었다  
(14.2%) ③ 친정에서 반대가 있었다 ( 7.5%) ④ 양가에서 모두 반대했다  
( 4.0%) ⑤ 무응답

4-1. 반대했다면,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 )

결혼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60.4%가 '처음부터 반대 없이 원만하게 결혼한' 반면, 35.6%인 133명은 양가 또는 어느 한쪽 집안에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특히 남편이 비장애인인 경우가 전체 기혼여성 장애인(374명) 가운데 41.2%가 남편이 비장애인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더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남편이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친정보다는 시댁에서 반대가 더 많았고,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양쪽 모두 장애인)에는 시댁보다 친정에서 더 많이 반대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을 둔 친정집안 부모들이 장애를 갖지 않은 사위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것이고, 시댁부모들은 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원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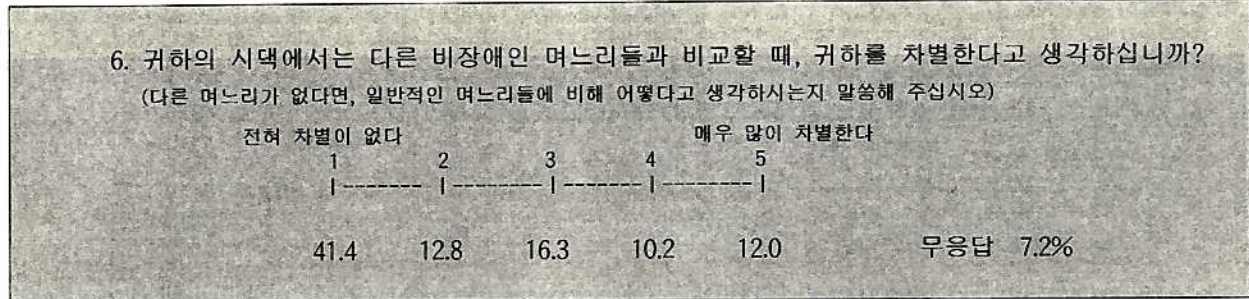
표 9) 결혼반대 이유

사례수 133명

장애 문제	65명	57.9% 무응답 제외시는 76.2%
경제적 우려	7명	6.0%
남편이 정상인이어서 부담과 두려움 때문	4명	3.8%
남자가 배신할까봐	3명	2.3%
남편의 결혼적령기가 너무 이르다고	2명	1.5%
부모가 없다는 이유	2명	1.5%
남편이 더 나은 곳으로 결혼했으면 해서	1명	0.8%
신랑이 장남이기 때문에	1명	0.8%
시부모사이의 갈등 때문에	1명	0.8%
종교 대립	1명	0.8%
무응답	27명	24.1%

결혼과정에서 처음부터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느 한쪽이상에서 반대가 있었던 경우에 그 이유는 거의 절대다수가 "장애문제 그 자체"였음을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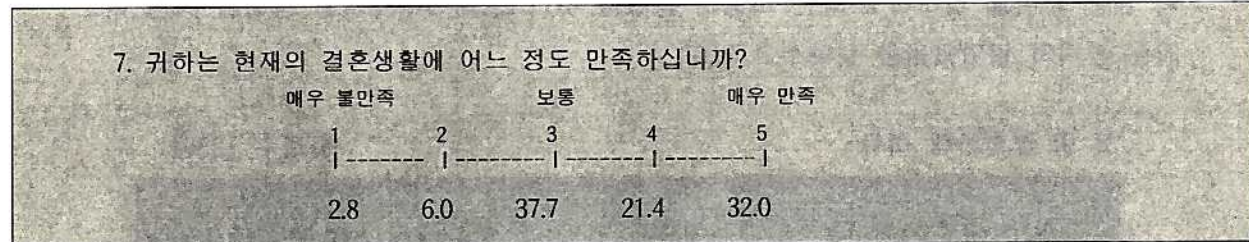
## 3. 시댁어른의 다른 비장애인 며느리와 비교



결혼한 374명의 여성장애인의 가운데 35.6%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 이상에서 반대가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시댁에서 심한 차별을' 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은 22.2%에 불과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의 차별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장애며느리 차별'항목의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차별'이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크게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결혼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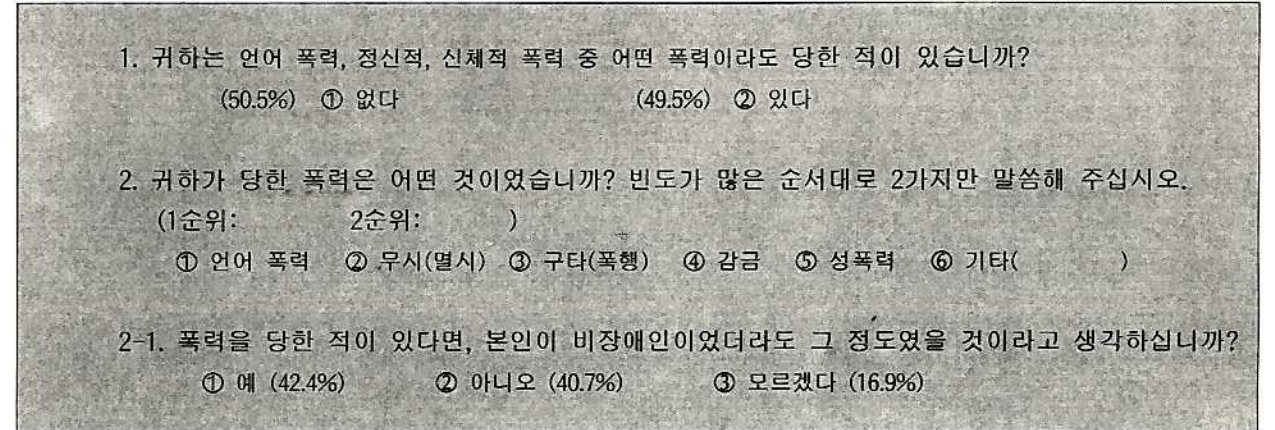
기혼 여성장애인 가운데 현재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281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비교적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53.4%가 결혼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장애여부와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들은 크게 가정, 직장, 사회라는 3가지 차원에서 차별과 냉대를 받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 보듯이 직장,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냉대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정과 결혼생활에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들은 남편과 가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직장, 사회의 차별과 냉대를 삭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아. 폭력(성폭력) 문제

1. 폭행 경험 여부 및 종류(빈도)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절반인 49.5%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 및 결혼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한가지 이상의 방법 폭력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은 356명이며, 이 가운데 254명은 두 종류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형태의 폭력은 무시(멸시) (43.1%), 언어폭력(42.8%)이며, 구타(폭행) (9.5%), 성폭행(2.5%), 감금(0.8%) 순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집계된 것은 "여성입장에서 성폭행 경험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기"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성희롱'을 '성폭행'과 동일시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폭력이라는 인식이 갈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은 뒤에 '성추행', '성희롱', '강간'과 같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가 114명으로 나타난 것이 그 증거이라 하겠다.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무시, 멸시 및 언어폭력의 성격상 그 피해정도는 일반일들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과 유사한 정도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멸시와 같은 그릇된 인식이 작용하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의 절반정도가 폭력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비장애인이었다면 그러한 폭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3. 성폭행 경험 여부 및 인물

1. 혹시 성희롱,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 없다 (84.1%)                      ② 있다 (15.9%)

1-1. “있다면”, 누구에 의한 폭력이었습니까?  
 ① 직장 상사    ② 동료    ③ 고용주    ④ 주위사람    ⑤ 가족  
 ⑥ 친척    ⑦ 기타(                      )    ⑧ 모르는 사람

2. 만약 성폭력을 당한 후, 귀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 1)

(33.3%) ① 그냥 참고 지냈다                      (22.8%) ② 현장에서 즉각 제재했다  
 (11.4%) ③ 가족들에게 알렸다                      ( 8.8%) ④ 친구에게 알려서 도움을 청했다  
 ( 7.9%) ⑤ 경찰에 신고했다                      ( 7.0%) ⑥ 목사, 수녀, 신부, 스님 등에게 알렸다  
 ( 2.6%) ⑦ 상담소에 알렸다                      ( 1.8%) ⑧ 기타(                      )  
 ( 4.4%) ⑨ 무응답

표 10)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경험

사례수 : 719명

<b>있다(114명) 15.9%</b>	주위사람	51명	44.7%
	모르는 사람	39명	34.2%
	직장상사	6명	5.3%
	동료	6명	5.3%
	가족	5명	4.4%
	친척	2명	1.8%
	고용주	1명	0.9%
	기타	1명	10.9%
	무응답	3명	2.6%
<b>없다(605명)    84.1%</b>			

표 11) 경험 후 행동 사례

사례수 : 114명

그냥 참고 지냈다	38명	33.3%
친구에게 알려서 도움을 청했다	10명	8.8%
가족들에게 알렸다	13명	11.4%
상담소에 알렸다	3명	2.6%
목사, 수녀, 신부, 스님 등에게 알렸다	8명	7.0%
경찰에 신고했다	9명	7.9%
현장에서 즉각 제재했다	26명	22.8%

적지 않는 여성장애인들(15.9%인 114명)이 성적인 수치로 느낄 정도의 ‘성희롱’, ‘성추행’,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청각(24.8%), 시각(15.1%), 지체(13.6%)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경우 성적인 범죄에 비장애여성보다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주위의 가까운 사람’의 의한 경우가 4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도 34.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직장상사’, ‘동료’가 각각 5.3%, ‘가족’(4.4%), ‘친척’(1.8%), ‘고용주’(0.9%) 등인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65.8%가 ‘안면이 있는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성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114명)들은 대부분 ‘그냥 참고 지내거나(33.3%)’, ‘현장에서 즉각 제재를 가하는(22.8%)’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족들에게 알린다’는 응답도 11.4%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당한 후 ‘상담소를 찾거나’(2.6%), ‘경찰에 신고’(7.9%)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강간’과 같은 사회적으로 확실히 “범죄”로 인식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성희롱’, ‘성추행’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성희롱’, ‘성추행’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 경제적 문제**

**1. 개인소득 및 가족소득(기혼자)**

1. (공통) 귀하의 개인적인 평균 월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단위 : 만원)  
 ① 개인소득 없음    ② 10미만    ③ 10-29    ④ 30-59    ⑤ 60-74  
 ⑥ 75-99    ⑦ 100-149    ⑧ 150-199    ⑨ 200이상

2. (기혼자만) 가족의 평균 월소득은 총 얼마입니까? (단위 : 만원)  
 ① 75미만    ② 75-99    ③ 100-149    ④ 150-199    ⑤ 200-249    ⑥ 250-299    ⑦ 300이상

조사에 응답한 여성장애인(719명)의 73.7%인 530명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써 월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학생을 제외한다면 전체의 75%가 매달 개인적인 소득이 전혀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을 갖고 있다할지라도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체응답자(719명)의 20.3%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의 월수입이 있는 여성장애인은 전체의 4.7%에 불과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자(374명)만을 대상으로 해서 볼 때, 월100만원 미만이 55.6%,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이 26.5%,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여성장애인 가정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정 월평균 소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소득수준이 아닐 수 없다.

**2. 정기적인 경제적 조력자**

3. 귀하가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도움을 많이 주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참고 : YMCA, YWCA 는 사회단체로 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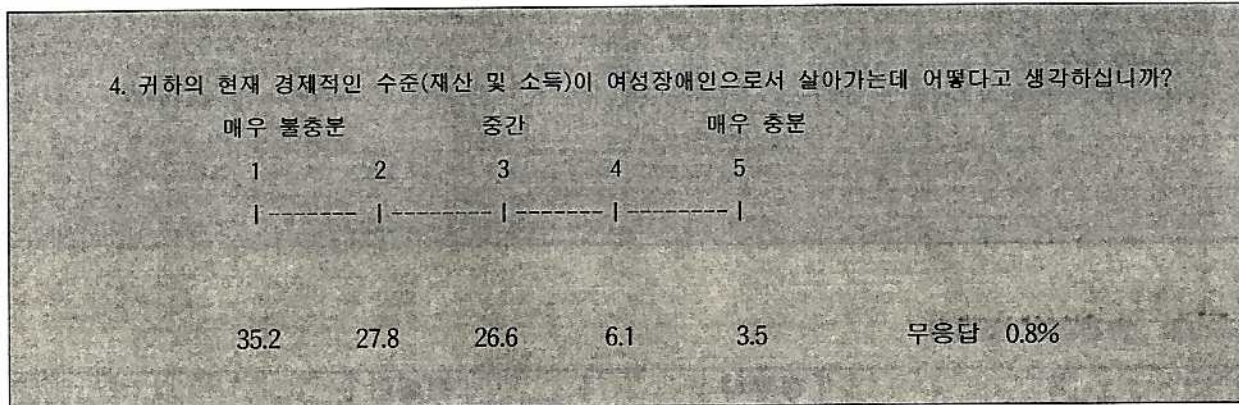
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 등)    ③ 사회단체    ④ 종교단체  
 ⑤ 가족(부모형제 및 친지)    ⑥ 독지가    ⑦ 기타(    )

표 12) 경제적 조력자

조력자 순위	사례수	독지가	정부나 자치단 체	가족	종교단 체	장애인 고용촉 진공단	사회단체	기타	무응답 문제
1 순위	719	206	163	45	17	4		7	277
1 순위	148	42	37	39	16	6	3	5	
계	867	248	200	84	33	10	3	12	277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 두 가지를 묻는 질문에서 우선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은 독지가(206명), 정부나 자치단체(163명), 가족(45명)순이며, 두 번째로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은 역시 독지가(42), 가족(39), 정부나 자치단체(37)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장애인 가족이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는 곳은 독지가 248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200), 가족(84명), 종교단체(33명) 순이다. 여성장애인은 신체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곤란에 빠져있어 많은 경제적인 조력을 필요로 하며 이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역할은 중대하다 하겠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듯이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준정부 성격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총867명 가운데서 24.2%(21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개인이나, 사회,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가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과정에서 보았듯이 현재 매우 경제적으로 곤란한 몇몇 여성장애인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돈 얼마라도 '보조금을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여성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각종 냉대와 차별에서 느끼는 어려움 이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차원에서 복지에산의 많은 부분이 가장 소외 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몫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3. 경제형편에 대한 만족도



여성장애인의 대부분인 75%가 개인적인 월소득이 전혀 없으며, 있더라도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혼 여성장애인 가정 가운데 95.3%의 가정의 월평균 소득도 100만원 미만인 점을 미루어 볼 때, 당연히 현재의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은 매우 낮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자료에서 보듯이 '현재의 경제수준에 만족'하는 경우는 10%미만이며, 과반수 이상인 63%의 여성장애인들이 '가정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앞의 '여성장애인으로서는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에서 '경제여건'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오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개인소득이 전혀 없는 여성장애인이 전체의 75%가 되고, 가족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여성장애인이 55.6%인 점으로 볼 때,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일반적인 가정의 월평균 소득(약 200-250만원대)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여성장애인 가정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자. 여성장애인으로서는 생활의 불편한 점

IX.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여성장애인으로서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경제생활 ② 교육 ③ 결혼 ④ 가정내 문제 ⑤ 폭력  
⑥ 비장애인의 차별적 인식 ⑦ 기타(구체적으로 )

표 13) 생활에서 어려운 점 세 가지

문제점 순위	사례 수	경제 생활	차별적 인식	결혼	교육	가정내 문제	폭력	자녀 문제	건강	취업	무응답
1 순위	719	409	98	76	62	43	6	5	3	1	16
2 순위	630	162	130	125	97	88	14	11	1	1	
3 순위	513	133	100	95	91	54	23	11	4	2	
계	1862	593	356	264	319	231	43	27	8	5	16

여성장애인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순서대로 세 가지를 응답한 결과 가장 먼저 문제점은 '경제생활', 사회의 차별적 인식, '결혼', '교육' 순으로 들었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역시 '경제생활', '사회적 차별적 인식', '결혼' 순으로 답하였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경제문제', '차별적 인식', '결혼'을 들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성장애인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 등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대우가 곤혹스러운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앞의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장애인으로서는 결혼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 생활 만족도**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그저 그렇다', 또는 '중간'이라는 응답은 다른 질문에서의 해석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간은 만족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불만족스럽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중간(그저 그렇다)'을 선택한 응답자는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성장애인의 삶을 고찰하는 주제의 성격상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볼 때, 여성장애인들은 가정, 직장, 사회로부터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여성장애인들은 정부의 어떤 여성장애인 정책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보면, 여성장애인들은 주위, 직장, 사회, 정부로부터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비교적 정도는 덜할지라도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 때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장애인정책'을 소리 높여 외쳐왔고 어느 정도의 기대를 심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그뿐 아무런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제는 그러한 외침에 어떤 희망도 걸지 않고 있다. 직장, 사회, 정부의 노력을 기대하였으나 충족되지 않아 이제는 조그만 기대마저 거두고있는 것이다. 이제 여성장애인들은 직장, 사회,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걸지 않는다. 더 이상 희망을 걸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럼 여성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현재의 생활'에서 그렇게 비판적이지는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경제수준에서의 평균점수 28.5점으로 매우 낮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점수는 46점을 부여하고 있다.

여성장애인들이 직접 실행했던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자신의 '경제형편'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그 주관적 평가를 비교적 높게 하고 있다. 즉,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라도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그나마 편견과 차별이 좀 덜한 가정에 기대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IV. 여성장애인의 각종 프로그램 이용여부 및 의향**

전체응답자 (N=719)	경험있음 %	적극이용 %	가끔이용 %	거의이용않음 %	여건상이용못함 %	모름/무응답 %
<b>■ 공공 정책</b>						
생계 보조비 지원	27.0	42.6	8.6	7.4	9.6	4.9
자녀교육비 지원	12.2	53.3	8.1	7.0	11.0	8.5
의료 보조비 지원	24.2	55.1	8.5	2.9	3.8	5.6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	10.4	54.7	8.6	5.8	10.2	10.3
금융 지원	6.7	57.3	12.0	8.3	7.0	8.8
각종 세금 공제	28.5	52.9	5.1	2.1	2.5	8.9
교통요금 할인 - 지하철	41.7	38.2	5.8	2.5	5.4	6.3
교통요금 할인 - 비행기	35.6	43.7	7.8	2.6	4.0	6.3
교통요금 할인 - 철도	30.6	44.4	8.2	2.5	6.4	7.9
서울시 도심 혼잡료 면제	4.5	51.5	6.1	7.5	16.7	13.8
공항시설 입장료 면제	12.8	53.7	7.9	4.5	10.4	10.7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13.1	54.8	4.6	4.2	14.0	9.3
LPG연료 사용	7.6	56.1	4.5	5.3	16.3	10.3
공영주차장 50% 감면	7.9	58.1	4.7	4.7	13.4	11.1
영구임대 아파트	25.0	44.9	2.9	5.4	11.7	10.0
<b>■ 사회 프로그램</b>						
장애인 전용차량 이용	12.0	42.0	8.8	6.0	12.4	18.9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7.4	52.2	12.5	10.2	8.8	9.0
장애인 전용 목욕탕	3.5	42.7	12.5	16.6	15.7	9.0
심부름 센터	4.0	48.3	14.9	12.5	10.8	9.5
가정 도우미	2.9	39.9	14.9	17.4	14.5	10.4
맹인심부름 센터 이용(112명)	19.6	50.0	14.3	8.9	3.6	3.6
배달서비스 - 슈퍼	13.9	42.8	11.4	9.7	11.8	10.3
배달서비스 - 음식점	19.2	41.0	10.6	9.3	8.8	11.1
배달서비스 - 각종 민원서류	3.5	50.8	12.2	9.7	11.3	12.5
가정 지원 프로그램	1.3	45.1	8.1	12.4	19.2	14.0
낮시간 재활 프로그램	3.5	52.6	11.4	9.9	11.4	11.3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1.8	57.2	8.1	8.5	12.5	12.0
직업재활 프로그램	5.6	54.1	10.6	8.6	10.8	10.3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3.8	48.7	11.0	11.7	14.3	10.6
자조집단 활동 프로그램	6.3	47.0	9.6	11.4	12.8	12.9
<b>■ 시설 / 교통여건 구비시</b>						
영화 관람	30.3	45.2	7.1	4.5	6.0	7.0
박물관, 미술관 관람	28.5	43.7	9.3	4.9	6.8	6.8
음악회 참석	20.4	45.8	8.5	7.1	9.9	8.3
고궁, 명승지 관람	28.1	45.1	9.5	5.0	4.7	7.6
근린 체육시설 이용	12.5	48.8	12.8	7.9	8.9	9.0

## V. 별첨

## 조사질문지



# 여성장애인 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차별 실태와 욕구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사회에 알림으로써 사회의 인식을 전환하고 정부당국의 실질적인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귀하의 응답은 통계처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됨을

활용되오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 응답 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SQ. 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재가(在家) 여성장애인입니까? ① 예 (면접시작)

② 아니오 (면접중단)

◆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 보겠습니다

1. 장애 유형 ① 지체 ② 시각 ③ 청각 ④ 기타( )

2. 장애 정도 (1~6급에서, ) 급)

3. 장애 발생원인은?

① 교통사고 ② 산업재해 ③ 소아마비 ④ 뇌성마비 ⑤ 근이양증 ⑥ 다운증후군 ⑦ 자폐증

⑧ 기타(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4. 나이는? (만 ) 세)

5. 학력정도(는?)

① 무학 ② 국중퇴 ③ 국졸 ④ 중중퇴 ⑤ 중졸 ⑥ 고중퇴 ⑦ 고졸 ⑧ 대중퇴 ⑨ 전문대졸 ⑩ 대졸이상

6. 귀하의 장애 발생은 언제쯤이었습니까?

① 출생 때부터 ③ 생후 1~2년 전후 ④ 7~8세 이전 ⑤ 20세 전 ⑥ 성인이 되고 나서

7. 귀하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귀하는 몇 번째입니까? ( 남 ) ( ) ( )

8. 귀하의 가족 중에는 또 다른 장애인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번으로 가시오

8-1. 장애인이 있(었)다면, 본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① 남편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오빠 ⑤ 남동생 ⑥ 언니 ⑦ 여동생 ⑧ 기타( )

8-2. 장애인이 있(었)다면, 장애유형과 정도는 어떻습니까?

1. 장애 유형 ① 지체 ② 시각 ③ 청각 ④ 정신 ⑤ 기타( )

2. 장애 정도 (1~6급에서, ) 급)

## I. "교육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정규 학교교육을 받는데 다른 비장애 형제·자매들과 비교하여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차별 받지 않았다					매우 많이 차별 받았다
1	2	3	4	5	
-----	-----	-----	-----	-----	

2.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성장애인으로서 충분히 학교교육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받지 못했다					보통				충분히 받았다
1	2	3	4	5					
-----	-----	-----	-----	-----					

2-1. 학교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택 1)

- 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 ② 가족들이 반대해서
- ③ 일반 학생들과의 갈등(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 ④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 ⑤ 주위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 기관이 없어서
- ⑥ 기타(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II. "취업 및 직업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취업단계에서,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차별 받지 않았다					매우 많이 차별 받았다
1	2	3	4	5	
-----	-----	-----	-----	-----	

2.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① 직종: /직책: ② 무직 → 8번으로 가시오.

3. 현재 종사하는 직장에서 여성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차별 받지 않았다					매우 많이 차별 받았다
1	2	3	4	5	
-----	-----	-----	-----	-----	

4. 직장생활에서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동료나 상사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십니까?)

- ① 그냥 참고 견딘다
- ② 즉각 동료 장애인과 함께 항의한다
- ③ 추후에 간부들에게 건의한다
- ④ 직장을 그만 둔다
- ⑤ 모르겠다

4-1. 직장생활에서의 차별대우를 극복하기 위해 만약에 전국단위의 장애인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면, 귀하께서는 동참하시겠습니까?

동참하지 않겠다					보통				적극 동참하겠다
1	2	3	4	5					
-----	-----	-----	-----	-----					

5. 귀하는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일 : )

5-1. 현재 하는 일이 귀하의 능력에 맞게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

6. 비슷한 일을 하는 비장애인 여성과 비교할 때, 급여나 인사면에서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차별 받지 않는다                      매우 많이 차별 받는다  
1                      2                      3                      4                      5  
|-----|-----|-----|-----|

7.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효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다                      ② 비장애인보다 약간 떨어진다  
③ 비장애인보다 많이 떨어진다                      ④ 비장애인보다 더 높다                      ⑤ 모르겠다  
7-1.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작업 배치    ② 편의시설 등 환경    ③ 교육(훈련)    ④ 기타( )

8. 사회가 여성장애인들의 노동권(직업을 가질 권리)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보장 하지 않는다                      매우 많이 보장 한다  
1                      2                      3                      4                      5  
|-----|-----|-----|-----|

9. 본인이 구직단계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까? (택 1)  
① 여성장애인에겐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② 기업체 등에서 여성장애인 고용을 꺼리기 때문에  
③ 직장 동료들이 여성장애인과 근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④ 집안 가족 등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기 때문에  
⑤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⑥ 사회적으로 고용 지원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⑦ 기타( )

10. 여성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택 1)  
① 여성장애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② 취업에 적합한 기술이나 능력  
③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④ 고용주의 이해(인식) 전환  
⑤ 정부의 고용 정책 개선                      ⑥ 여성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  
⑦ 기타( )

11. 회사의 고용주들이 여성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택1)  
① 여성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관리가 부담스러워서  
② 직장내 동료들간의 인간관계 문제가 부담스러워서  
③ 원하는 기능인력이 없어서  
④ 대인 서비스 업무부문에서 고객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⑤ 비장애인에 비해 생산성(일의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⑥ 단지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⑦ 기타( )

12. 귀하가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직업을 가질 생각이 있습니까?  
① 예 (☞ III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12-1. 직업을 갖고 싶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

III.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가족 내의 의사 결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 외에) 여성장애인이라는 점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차별 받지 않는다                      매우 많이 차별 받는다  
1                      2                      3                      4                      5  
|-----|-----|-----|-----|

2. 가정에서 대소사가 있을 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적이 있습니까?  
전혀 차별 받지 않는다                      매우 많이 차별 받는다  
1                      2                      3                      4                      5  
|-----|-----|-----|-----|

3. 가족들이 얘기를 나눌 때, 따돌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따돌림 받지 않는다                      매우 많이 따돌림받는다  
1                      2                      3                      4                      5  
|-----|-----|-----|-----|

4. 귀하의 가족이 나들이를 할 때,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참여 하지 않는다                      매번 참여 한다  
전혀 따돌림 받지 않는다                      매우 많이 따돌림받는다  
1                      2                      3                      4                      5  
|-----|-----|-----|-----|

5. 가족들이 은연중에 귀하가 "장애인 수용 시설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없다                      자주 있다  
1                      2                      3                      4                      5  
|-----|-----|-----|-----|  
(☞ IV번으로 가시오)

5-1. 있으시다면 귀하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① 가족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② 집에서 차별을 받느니 차라리 입소하는 것이 낫겠다  
③ 직업훈련을 배운 뒤 가정에서 독립하고 싶다                      ④ 최악의 경우 고려해 보겠다  
⑤ 기타( )

IV. "비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주위 사람들이 여성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없다                      매우 많다  
1                      2                      3                      4                      5  
|-----|-----|-----|-----|



VII. "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오나 향후 정부의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솔직히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귀하는 언어 폭력, 정신적, 신체적 폭력 중 어떤 폭력이라도 당한 적이 있습니까?
2. 귀하가 당한 폭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빈도가 많은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2-1.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본인이 비장애인이었다라도 그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III. "성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보다 비교해서도 많은 성적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밝혀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차후에라도 그러한 억압을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 혹시 성희롱,강간,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1-1. "있다면", 누구에 의한 폭력이었습니까?
2. 만약 성폭력을 당한 후, 귀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 1)

IX "경제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귀하의 개인적인 평균 월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단위 : 만원)
2. (기혼인 경우) 가족의 평균 월소득은 총 얼마입니까? (단위 : 만원)
3. 귀하가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4. 귀하의 현재 경제적인 수준(재산 및 소득)이 여성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충분/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X.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여성장애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XI. 귀하의 현재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조사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만 활용되오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면 접 일 시, 1.오전 2.오후, and 면접원 성명. Includes fields for respondent name, address, phone number, and interviewer name.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별이 낳은 차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자!

한국 사회의 여성 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여성 차별의 핵심이라면 '장애인은 무능력하다'라는 편견이 장애인 차별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차별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은 법·제도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를 갖지 못해, '고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로 인해 '가난'에 이르는 등 '차별이 낳은 차별'의 악순환 속에서 '복지'는 커녕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한국 사회의 여성 장애인이 각별히(?) 차별 받는 계층으로서 고통의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여성계와 장애인계는 여성,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창출해 내고 편견을 개선하는 등의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 그동안에 여성 장애인 문제만은 논의의 영역에 들으로써 '소외 속의 소외'라는 최악의 여성 장애인 차별을 낳았다.

하나, 나이로비 여성 발전 전략 296조 등 여성 장애인 인권 회복을 위한 국제 기구들의 강력한 제안을 무시하는 정부는 지금까지는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관심사나 요구 등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 권리보다는 체념, 투쟁보다는 복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스스로가 차별의 두께를 더욱 두텁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 문제는 심각한 만큼 오히려 왜곡되고 안으로 숨겨져서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관심사나 요구 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더러 여성 장애인 차별에 대한 대안 부재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 장애인 스스로 여성 장애인 차별을 반대하고 차별적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빛장을 여는 사람들'과 '한국맹인여성회'는 제2차 동아시아 여성 포럼에 참여하면서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특히 '차별이 낳은 차별'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각국의 여성 NGO 위원회는** 보다 소외된 여성장애인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별히 여성 관련 각종 사업에서 여성 장애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여성, 그리고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특별히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관심사와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 자문 기구들을 설치해야 하며, 분명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국의 장애인 차별과 싸우는 단체는** 각기 여성 장애인 분과를 신설하고, 여성 장애인 인권 회복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여성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해

##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에 참가하는 사람들 1996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 (02-521-5364)  
한국맹인여성회 (02-319-7043)

여성 장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권'을 갖는다.

여성 장애인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평등권'을 갖는다.

여성 장애인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부분에서 '선택권'을 갖는다.

여성 장애인은 모든 시설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용하며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여성 장애인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본권인 '교육권'을 갖는다.

여성 장애인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안전권'을 갖는다.

여성 장애인은 유익한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알맞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권'을 갖는다.

여성 장애인은 숙련되고 믿음직한 의료보호 서비스를 통한 '건강권'을 갖는다.

여성 장애인은 가족 내의 역할과 가정을 창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족권'을 갖는다.

여성 장애인은 권리를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조자립권'을 갖는다.

## 두 가지 핵심적 차별을 안고

한국 사회의 여성 장애인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여러 가지 종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교적 사회 이념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극대화하고 있다. 유교 이념에 바탕을 둔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여성 차별의 핵심적인 이유라면, 장애인은 무능력하다는 심각한 편견이 장애인 차별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차별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인은 '차별이 낡은 차별' 속에서 더한(+) 것이 아닌 곱해진(X) 고통을 안고 힘겹게 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양태는 가족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혹은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부끄러운 고백, 교육을 20% 이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1995년 1백21명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20%이상의 여성 장애인이 초·중등의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받지 못한 이유로는 장애 때문에 등학교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50%이상을 차지했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여성 장애인이 적어도 30% 이상으로 집계됐으며(부모나 보호자의 의지 부족), 친구들이 놀려대거나, 부끄러워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더러 눈에 띄게 나타났다.

한편 교육받지 못한 여성 장애인은 고용의 기회에서도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 장애인은 20%이하였으며, 직업을 가진 여성 장애인은 대부분 생산적에다 열악한 노동 환경,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태 조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아예 결혼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장애로 인해 아예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혹은 결혼 전의 가족 관계 속에서 당한 상처를 다시 입고 싶지 않아서, 또는 결혼보다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시댁 측이 지참금을 요구해서 등으로 답변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여성 장애인에 관한 추정치 만이 밝혀졌는데 장애인은 약 95만 여명 중 여성 장애인은 44%인 40만 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계(민간단체)에서는 정부가 규정하는 장애인 범주보다 확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인 각 국가 국민의 10%가 장애인 수(한국 : 450만 여명)라는 기준에 따라 그 반수(230만 여명)를 한국 사회 여성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 논외의 영역, 여성 장애인 문제

한편 한국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 양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무관심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여성 장애인 여성계에서도 장애인계에서조차도 논외의 영역일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로 전혀 제기되지 못했고, 아직도 권리보다는 체념, 투쟁보다도 복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스스로가 차별이라는 '무형의 벽'의 두께를 더욱 두텁게 만들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 혹은 여성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각색의 법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에 여성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한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

다. 예를 들어 여성과 장애인 관련 법 중 성폭력특별법 안에 "시설 수용된 여성 장애인을 성폭력 할 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여타의 모든 법안에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제도가 없는 것이다.

## 차별 심화시키는 신경제주의

더구나 최근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경쟁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신경제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국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는 여성 장애인 문제를 더욱 소외와 편견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한편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1995)을 마련하였다. 세추위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도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여성 장애인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 한국 사회의 여성 장애인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 지금 한국사회의 여성 장애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빛장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 94년 12월 출범했다.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문제를 밝혀내고 그에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여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다. 그것도 여성 장애인 스스로 여성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빛장은 현재 회원 50여명이 주 1회, 월 1회의 모임을 갖고 여성 장애인 인권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빛장은 한국 여성 NGO위원회의 장애인 분과로 가입하였으며, 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 대회에 참여해 한국 정부의 여성 장애인에 대한 나이로비 전략의 국가 이행 사항 검토, 2000년 미래 전략 수립 등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빛장은 여성 장애인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알려 내기 위해 여성 장애인 수기 모음집 발간을 준

비중이며, 오는 10월에는 '가정과 여성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96 여성 장애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 지난 76년 1월에 출범한 한국맹인여성회가 회원 150명으로 예절 교실, 메이크업 교실, 요리 교실, 불우 이웃돕기, 판매 및 바자회 등의 일을 하면서 맹인 여성의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삶의 질을 향상하려면

앞으로 여성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10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주도하에 한국 사회의 여성 장애인 문제 실태와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사회와 세계 각 국가에 널리 알린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 여성 장애인과 직접 관련된 법안에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가 수렴될 수 있는 안을 삽입하고,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장애인의 참여를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여성 장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정책 전담 기구들 내의 특별 관심 분야 전담 기구를 두고 그곳에 여성 장애인 분과를 두어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제안한다.

넷째, 여성 장애인의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해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법, 제도 개선 및 홍보 활동, 대중매체의 여성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심의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한다.

다섯째, 여성 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노력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조항 중 여성 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와 자질에 맞는 직업교육 실시 등을 제안한다.

## 안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해

여섯째, 모든 여성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별 조치와 지원을 마련하며 학령기를 넘긴 여성 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일곱째, 폭력으로부터 여성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폭력특별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철폐하고,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도 시설내 여성 장애인에서 전체 여성 장애인으로 확대시키고 특히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시설내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전문기구를 관련 정부 기관 내에 두기를 강력히 제안한다.

여덟째, 여성 장애인의 사회복지 정책 개선 사항을 위해, 정부 차원의 모자 가정의 복지 증진, 각종 사회보장제도 확대 실시를 요구한다.

아홉째,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에 맞는 주거 및 사회 환경 개선을 제안한다.

열 번째, 여성 장애인 문제 해결은 여성 문제 혹은 장애인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당면 과제로서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장애인 스스로의 주도적인 노력과 여성 단체 혹은 장애인 단체와의 긴밀한 연대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성 장애인 문제에 해결점을 서로 교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안은 여성 장애인 문제를 단지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회복 운동으로 인식하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곧 여성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북경 세계여성대회 비정부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주제로 지난해 북경에서 열린 북경 세계여성대회 비정부(NGO) 포럼에 한국 여성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빛장을 여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북경세계여성대회에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비정부 포럼에 참가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전세계 2백여 명의 여성 장

애인은 포럼장에 장애인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것으로부터 목소리를 높여 연일 정기 시위를 벌였으며, 여성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여성 장애인 비정부포럼 기간동안 권리로서 "비정부 기구 포럼장의 편의 시설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포럼장 곳곳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었으며 휠체어 대여료 돌

려 받기 서명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프레스 센터를 찾아가 각국 언론을 향한 맹렬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어 여성 장애인 권리를 전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